

철도산업의 철도사고 및 운행지연에 따른 피해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곽상록*[†], 정광우*, 왕종배**

초 록 철도안전법 제정이후 국내의 철도사고 발생율과 사망자 발생율은 9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철도안전에 대한 다양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안전투자 대비 안전 개선 효과의 산정에 있어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고 및 운행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안전투자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높은 열차운행 밀도와 여객밀도를 주요 인자로 고려하였다.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철도운전시스템전공(slkwak@ut.ac.kr)

* 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철도운전시스템전공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팀